

논문

葛庵 李玄逸의 生涯와 『錦陽及門錄』의 內容 考察

안동대학교 도서관
윤 동 원

< 목 차 >

1. 머리말
 2. 葛庵의 生涯와 學問活動
 - 1) 生涯
 - 2) 學問活動
 3. 「錦陽及門錄」의 編成體制
 4. 「錦陽及門錄」의 分析
 - 1) 居住別 門人分布
 - 2) 姓氏別 門人分布
 - 3) 科擧 合格者 數와 官職
 - 4) 師承關係
 5. 맺음말
- 참고문헌

1. 머리말

갈암 이현일(1627~1704)은 조선조 성리학의 양대 준령을 이루는 퇴계와 율곡의 시대보다 한 세기 뒤인 17세기 말 숙종대에 활동하였던 인물이다. 퇴계와 기대승 사이의 사단칠정 논변은 조선조 성리학의 새로운 수준을 성취하였다는 사실과 사단칠정의 心性論을 성리학의 주제로 삼음으로써 다음 시대의 철학적 사색에 이정표를 제시하였다는 사실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¹⁾

갈암이 퇴계와 율곡이라는 두 준령을 지나 한 세기 뒤에 출현하였다는 사실은 그의 사상적 위치가 그의 앞에 놓인 준령들에 대한 거리와 方位에서 설명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영남에서 태어나 성장하였던 그는 퇴계의 성리학적 입장을 추종하는 이른바 영남학과 내지 퇴계학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퇴계와 갈암 사이에는 퇴계의 제자와 그 再傳 제자도 많았으며 이들이 퇴계의 학풍을 존숭하고 계승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성리학 이론체계에 있어서 퇴계의 입장을 옹호하고 다른 비판적 입장에 대해 재비판하는 역할을 갈암이 처음 담당하였다는 것은, 그가 性理學史 속에서 단순히 퇴계학과에 속한다는 정도를 넘어서 퇴계학파가 이현일에 이르러 그 성격을 뚜렷이 확립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퇴계의 성리설은 갈암 이후 그의 아들인 密庵 李裁를 거쳐 밀암의 외손인 大山 李象靖으로 계승되었다. 곧 갈암 → 밀암 이재 → 대산 이상정 → 損齋 南漢朝 → 定齋 柳致明 → 西山 金興洛으로 이어진 퇴계학과 정맥은 韓末 이후로까지 면면히 계승되었다.²⁾

『錦陽及門錄』은 葛庵 李玄逸의 문인록으로 여기에 수록된 358명은 그가 평생에 걸쳐 가르친 제자들이다. 이 문인록에는 개개인에 관한 많은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문인들의 성명·자·호·본관·생년·과거·관력·저작 등을 밝히고 있어 문인록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이들 집단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문인록이 이들 집단의 전모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 실상에 접근할 수 있는 많은 단서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인록의 분석은 매우 흥미 있고 중요한 사료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인 李玄逸 문인들의 학문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그의 생애와 학문활동을 살펴보고 문인록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문인록의 분석에서는 문인록의 서지사항, 수록된 문인들의 거주지별 분포, 성씨별 문인 분포, 과거합격자 수와 관직 등을 살펴보고 문인들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350명이 넘는 문인들을 고찰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계량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1) 琴章泰. 1996. 葛庵 李玄逸의 인물과 사상. 『退溪學派의 思想(1)』, 서울: 집문당. 268.

2) 琴章泰. 1996. 위의 논문. 269.

2. 葛庵의 生涯와 學問活動

1) 生涯

한 사람의 자취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생애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갈암의 생애를 「행장」과 「연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것을 중심으로 그가 지향했던 삶의 방향과 학문적 경향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갈암의 생애는 「연보」에 의거 중요사항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627년 1월 11일 寧海 仁良里 本家에서 출생
- 1633년(7세) 受十九史略
- 1638년(12세) 受小學
- 1639년(13세) 受論語
- 1640년(14세) 判書公과 英陽 石保로 避地
- 1644년(18세) 聘父人朴氏 功之女(贈判書) 武毅公毅長之孫 作自敬箴
- 1646년(20세) 進士合格 罷榜 長男挺出生
- 1648년(22세) 鄉試合格 次男穰(後出仲氏存齋徽逸) 陪判書公(父) 往安東之金溪 行拜金鶴沙(應祖) 於榮州里居
- 1649년(23세) 從存齋先生讀書山房
- 1652년(26세) 從存齋先生講業于石溪草堂 遊清涼山
- 1653년(27세) 判書公과 英陽 首比隱居
- 1656년(30세) 外叔父張鐵堅 湖西安興島 配所
- 1657년(31세) 3男栽(號密庵)生
- 1662년(36세) 4男松(號弘齋)生 遊江陵
- 1666년(40세) 爲士林制辦大王大妃爲先王 服制疏
- 1667년(41세) 與木齋洪公 錦翁金公學培會鏡光書齋
- 1672년(46세) 哭存齋先生 夫人朴氏卒
- 1673년(47세) 哭金錦翁學培 築南嶽谷(英陽石保)
- 1674년(48세) 移居南嶽 薦從仕郎 寧陵參奉 判書公(父)卒 谷洪木齋
- 1676년(50세) 拜社稷壇參奉
- 1677년(51세) 宣務郎掌樂院主簿 工曹佐郎 司憲府持平
- 1680년(54세) 母夫人張氏卒
- 1685년(59세) 次男穰卒 南嶽草堂成
- 1686년(60세) 洪範衍義成

- 1688년(62세) 遇潭丁公(時翰)來訪 栗谷四端士情書辨成
1689년(63세) 通政大夫工曹參議(不允) 成均館祭酒(不允) 嘉善大夫禮曹參判 元子
輔養官再疏辭(不允) 大司憲
1690년(64세) 撰遁庵柳公(馨遠)隨錄序
1691년(65세) 吏曹參判(不允) 兵曹參判(不允) 吏曹判書
1694년(68세) 洪原 鏡城安置
1697년(71세) 纂惇典粹語 光陽移配
1698년(72세) 入智異山雙溪寺 寓居安東臨河琴韶 孤山李公(惟樟)來訪 築錦陽 諸
生講學
1701년(75세) 哭李孤山 答丁遇潭書
1702년(76세) 剛正西厓先生年譜
1704(78세) 10월 卒
1718년 奉安寧海仁山書院
1852년 命復官爵
1871년 賜諡文敬
1909년 文集重刊

본관은 載寧, 자는 翼昇, 호는 葛庵·南嶽으로 1627(인조 5)년에 영해부 인랑리 본가에서 石溪 李時明의 3남으로 출생하였다.

갈암의 가계는 재령이씨 寧海派로서 그는 영해 입향조인 현령 李璵의 현손으로, 이애는 세조~경종 연간의 名宦의 한 사람이었던 李孟賢의 여섯째아들로 16세기 초 숙부 李仲賢의 임지를 따라와 영해부의 대성인 大興白氏에게 장가들어 그 곳에 정착하게 된 사람이다.

영해부는 海陸物産이 풍부하여 경제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곳이었다. 지리적으로도 동해안의 요지로서의 이점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지리적 조건은 사회·문화적 수준의 상대적 선진 가능성이기도 하였다. 고려 고종 이래 이 곳 토성인 박씨의 성장과 중앙 정계진출³⁾, 李穀의 이곳 김씨가로의 婚娶, 그리고 불교시대에 있어 懶翁과 같은 명승의 배출 같은 것이 그 가능 여건이 실현된 단적인 사례들이다. 특히 여말 이래 이곳의 사회·문화적 수준은 더욱 향상·확대되었고,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士族 가문의 共在는 사회·문화적 지위에 대한 선의의 경쟁 풍토를 빚어 갔다.

재령이씨는 이와 같은 지역적 특성 위에 경제력을 기반으로 곧바로 이 지역의 명문가로 성장해 갔다. 즉 이애의 아들인 李殷輔를 거쳐 그 아들인 李涵에

3) 衛社功臣 朴松庇, 左僕射 朴得珠, 典法判書 朴元桂 등.

이르러서는 마침내 문과에 오르게 되는 한편, 5남 2녀로 孫勢가 번상하고 그곳 영해와 안동·예안의 사족 명가와 結婚하여 사회적 입지가 더욱 상승해 갔다. 그는 鶴峰 金誠一의 형제와도 인척간이었다.

이러한 재령이씨 가문 자체의 조건 위에 특히 이함의 셋째 아들인 석계 이시명이 전취로 예안의 광산김씨 近始齋 金垓의 사위가 되었고, 후취로는 안동의 안동장씨 경당 張興孝의 사위가 된 것이 가문의 문화와 역량의 비약적 상승의 계기가 되었다.⁴⁾

갈암에게는 外傳가 없었다. 원천적으로 외부를 둘 필요가 없었다. 모부인 장씨의 세심한 敎誨에 뒷받침을 받으며 부친과 중형 존재 李徽逸에게서 기초과정을 수학하고 학문 역량을 길러 갔다. 9세에 글을 지었으며 중형인 존재에게 학문적 가르침을 받았다. 18세에 같은 지역의 명문인 무안박씨 집안의 朴毅長의 손녀를 부인으로 맞았다. 그리고 이 해 歲除에 自警箴 5편⁵⁾을 지어 학문에의 자세를 가다듬었다.

1646(인조 24)년과 1648년에 초시에 모두 합격하였으나 벼슬에 나아갈 뜻이 없어 복시를 단념하였다. 1652(효종3)년 중형 휘일의 『洪範衍義』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1666(현종7)년에는 영남유생을 대표하여 宋時烈의 ‘暮年禮說’을 비판하는 소를 올렸다. 1674년에 학행으로 명성이 높아지자 寧陵參奉에 천거되었으나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나아가지 않았다. 1676(숙종 2)년에 社稷署參奉에 제수되었으나 3년 상이 끝나지 않아 나아가지 않았다. 이듬해 掌樂院主簿, 이어 工曹佐郎에 임명되었으나 상경하여 謝恩하고 곧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어 司憲府持平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1678년에 工曹正郎·持平에 임명되었으며, 외척의 용사와 당쟁의 폐단 등을 논하였다. 1686년에는 『洪範衍義』를 續成하였으며, 1689년 山林에게만 제수되는 司業에 임명되고, 이어 司憲府掌令·工曹參議에 임명되었으며, 이때 仁顯王后 폐비문제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사직소를 올렸으나 윤허되지 않았다.

임술무옥의 신설을 건의하였고, 6월에는 山林儒賢의 벼슬인 祭酒에 임명되어 經筵에 참석하였다. 이어 禮曹參判 겸 祭酒·元子輔養官에 제수되어 거듭 사임의 뜻을 표하였으나 윤허되지 않았다. 8월에는 검직과 함께 大司憲에 올랐고, 9월에는 인현왕후를 위한 소를 올렸으나 왕의 윤허를 얻지 못하고 11월에는 焚黃을 이유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1690년 吏曹參判·世子侍講院讚善에 임명되어 世子冊禮에

4) 李東歡. 2000. 하나의 葛庵論:葛庵集 解題. 『17세기 한 嶺南 道學者의 生涯: 葛庵 李玄逸의 年譜 외』, 성남: 嶠文會. 11-12.

5) 戒怠惰(게으름을 경계함), 戒戲玩(장난을 경계함), 戒不專(전일하지 못함을 경계함), 戒言動(언동을 경계함), 戒矜大(잘난 체하는 것을 경계함).

참석하였고, 다시 大司憲·吏曹參判에 거듭 임명되었으나 그때마다 사직 상소를 내었다. 1692년에 다시 大司憲에 임명되었으며, 경신·임술무옥의 신설을 건의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어 兵曹參判·資憲大夫·右參贊·吏曹判書에 연이어 임명되었다.

1694년 4월 인현왕후가 복위된 뒤 갑술환국 때 趙嗣基를 친구하다가 함경도 홍원현으로 유배되었다. 다시 서인 安世徵의 탄핵을 받아 종성에 圍籬安置되었으며, 유배지에서 글을 가르치며 『愁州管窺錄』을 완성하였다.

1697년에 호남의 光陽縣으로 유배지가 바뀌었고, 1698년에 葛隱里로 이배되었으며, 1699년에는 放歸田里의 명이 내렸다. 1700년에는 안동의 임하현 琴詔驛에 이거하였다가, 여기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錦陽에서 집을 짓고 諸生을 강학하였다. 1701년 인현왕후가 승하하자 석방명을 환수하였으나 압송되지는 않았다. 1704년에 仁德里로 이거하였다가 금소로 돌아와 금양에서 죽었다.

1710년에 죄명이 풀리고 이듬해 복관되었다가 환수되었다. 1718년 영해의 仁山書院에 제향되었으며, 1853(철종 4)년에 다시 복관되었다가 환수되었다. 1871(고종 8)년에 문경(文敬)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가 환수되었으며, 1909년에 관직과 시호가 모두 회복되었다. 영남학파의 거두로 李滉의 학통을 계승하여 이황의 理氣互發說을 지지하고 李珥의 학설을 반대하였다.

저서로는 『葛庵集』, 『栗谷四七辨』, 『四端七情書辨』, 『尊周錄』, 『忠節錄』, 『永慕錄』, 『新編八陣圖』, 『愁州圖』, 『洪範衍義』, 『愁州管窺錄』, 『惇典粹語』 등이 있다.

2) 學問活動

갈암 이현일은 퇴계학파의 학맥을 계승한 학자이다. 그러나 그는 학파적 한계에 머물지 않고 당대 성리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여 새로운 정론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갈암이 살았던 17세기 말 조선은 정치적으로는 당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속하며, 사상적으로는 학파의 발전기에 속한다. 사회적으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전란의 폐해를 딛고 조선 사회 내부에 새로운 변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에 해당된다. 그가 살았던 시기의 조선사회는 다양한 변모의 기류에 놓여지며, 그의 삶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나름대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⁶⁾

이 시대는 당파적으로는 기호지역에서 老論과 소론으로 갈라졌지만 노론이 주도하였고, 영남지역은 남인으로 일치되어 있었으나, 결국 기호지역의 노론과 영남

6) 윤천근. 1994(11-12). 갈암 이현일의 삶과 의식세계. 『안동』, 안동: 사랑방. 35 : 16.

지역의 남인 상에 정치적 대립이 과열되어 갈등의 소용돌이에 정국도 휘말려든 상황이었다. 당쟁은 동인, 서인의 붕당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동인은 金孝元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로 이황과 조식의 문인이 많이 속하여 있었고, 서인은 沈義謙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로 이이와 성혼의 문인들이 많이 속하여 있었다. 1575년부터 인조반정(1623년)까지는 동인의 세력이 우세하였다. 그러므로 정권을 담당하였던 동인은 1589년경에 남북으로 분화되는 것이다. 남인은 이황 계열이 주로 속하고, 북인은 曹植 계열이 주로 속한다.

그가 살던 시대는 바로 서인의 천하였다. 그러니 남인에 속하는 그가 출세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이다. 그가 과거 보는 일에 열중하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진다. 20세와 22세에 아버지의 명을 받고 시험을 보아서 초시에 합격하지만, 출세에 뜻이 없었으므로 복시를 포기하였다. 과거를 완전히 포기하고 『역경』 연구에 몰두하다가 42세 되던 해에 아버지의 명으로 서울로 올라가 과거에 응시하였다.

이렇듯 갈압은 과거와는 무관한 의식을 갖추고 있었고, 출사에도 별 뜻을 품고 있지 않았다. 아무래도 당시가 당쟁의 시대라는 점과 그의 개인적 취향 같은 것들이 상호 연관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다. 그는 벼슬하는 것 보다 학문에 몰두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기사환국 이후 남인정권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서인정권 시절에 보인 그의 벼슬과 과거에 대한 무관심은 아마 당쟁으로 인한 출로의 봉쇄라는 점과 무관한 것이라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⁷⁾

조선왕조의 당쟁은 주로 지역적 연계성과 학문적 연계성을 축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물론 같은 지역 사람들이나 같은 학문적 특성을 갖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하나의 당파로 묶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황의 학맥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인에 속하였고, 나중에는 남인에 속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당파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남인과 서인 사이의 경쟁은 결국 학파적 대립의 양상을 띠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사상적 입장을 수호하고자 하는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였다. 특히 이현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사상적 입장을 수호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그만큼 그가 이황 계열의 학맥을 이어받은 적통에 속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⁸⁾

1659년 효종이 승하하자 대왕대비 조씨의 상복제도 문제로 宋時烈과 許穆 사이에 己亥禮訟이 일어났다. 당시 영남유림들이 송시열의 期年(1년) 服說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고자 할 때, 그는 40세로 이 상소문을 지어 3년 복설을 논리정연하게 제시함으로써 의례논쟁에 뛰어 들기도 하였다. 1674년 숙종의 즉위와 함께 남인의

7) 윤천근. 1994(11-12). 위의 논문. 35 : 18-19.

8) 윤천근. 1994(11-12). 위의 논문. 35 : 21.

禮說이 채택되면서 송시열이 유배되고 정권도 남인에게 넘어왔다.

1676년 그의 나이 50세 때 父喪에 거상중이었는데 사직서참봉 벼슬이 내려오면서 그에게 벼슬길이 열려 仕宦期가 시작되었다. 42세 때 아버지의 명으로 과거시험을 한차례 보았던 일이 있지만, 그는 오직 학문에만 뜻을 두고 벼슬에는 뜻이 없었다. 그러나 51세 때 장악원주부에 제수되면서부터 벼슬길에 나서, 이듬해 사헌부지평에 거듭 제수되자 5조목의 상소를 올렸다. ① 正學을 밝혀 大本을 세울 것, ② 忠諫을 받아들여 壅蔽를 제거할 것, ③ 紀綱을 떨쳐 風俗을 권장할 것, ④ 公道를 넓혀 王法을 바르게 할 것, ⑤ 民情을 살피 實惠를 행할 것 등으로 임금 자신의 마음과 임금의 신하에 대한 과제, 정부의 임무와 백성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였다.⁹⁾

53세 때 筍子가 ‘임금을 배에 백성을 물에’ 비유한 데 따라, 숙종이 지은 「舟水圖說」을 조목별로 광범한 문헌을 검토하고 수집하여 체계화한 『御製水舟圖說發揮』를 지어 올림으로써 經世論에 대한 그의 인식을 폭넓게 보여 주고 있다.

庚申換局(1680)으로 서인이 다시 집권하자, 尹鑰는 죽임을 당하였고, 그는 마침 母喪으로 벼슬에서 물러났다. 초야에 물러나 있는 시기에 학문에 관심을 집중하여 『洪範衍義』를 완성하고 율곡의 성리설에 대한 비판이론을 전개하였다. 끊임없이 사퇴 상소를 올리지만 그 해에 成均 司業으로 시작하여 공조참의·이조참의·성균계주를 거쳐 대사헌에 이르는 빠른 승진을 하였다. 經筵에서 수시로 임금에게 進講하여 도학적 이념에 근거하여 정치하는 도리를 밝혔으며, 67세에는 이조판서에까지 올랐다.¹⁰⁾

그러나 이듬해 甲戌換局이 일어나 소론이 등장하면서 閔妃가 복위되고 張妃는 嬪으로 격하되었으며, 노론과 소론이 득세하면서 경쟁하고 남인은 권력에서 완전히 밀려나고 말았다. 68세의 노령인데도 함경도 鐘城에 유배되어 圍籬安置당하였다. 이 북변의 유배지에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시 학문에 전념함으로써, 이곳에서 성리학사의 중요한 업적을 이루었다. 69세 때는 『愁州管窺錄』을 저술하여 퇴계설을 옹호하고 여러 성리학자들의 학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71세 때는 『惇典粹語』를 편찬하여 인륜규범을 체계적으로 밝혔다. 그 해에 光陽으로 유배지를 옮겨 남북의 끝으로 유배지를 전전하였다. 이처럼 그의 仕宦활동은 남인의 정치적 성취와 일치하는 것이다. 74세에 유배에서 완전히 풀려나 고향에 돌아와 안동 琴韶에 옮겨 살았다. 77세 때 『退溪先生言行通錄篇目』을 정하여 『退溪言行錄』의 새로운 정리작업을 계획하였고, 『尊周錄』을 편집하여 排淸義理를 드러내려고 노력함으로써 그의 학문과 이념에 두 주제인 퇴계학의 계승과

9) 『葛庵集』, 卷2. ‘辭免持平兼陳五條疏’.

10) 금장태. 1996. 위의 논문. 266-266.

배청의리론의 발휘를 추구하고 있다.¹¹⁾

3. 「錦陽及門錄」의 編成體制

이 금문록의 원본은 확인할 수 없으나 2001년 嶠文會에서 편찬한 『17세기 한嶺南 道學者의 生涯: 葛庵 李玄逸 年譜 외』에 수록되어 있다. 수록 내용을 살펴보면, 범례 9항이 수록되어 있으며, 본 내용과 己酉續錄, 癸丑續錄이 추록되어 있다. 내용별 수록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수록인명 | 비고 |
|------|------|----|
| 본 내용 | 294 | |
| 기유속록 | 30 | |
| 계축속록 | 34 | |
| 계 | 358 | |

개인별 기재내용을 보면 인적사항인 성명·자·호·본관·거주지·생년·친족관계·과거·관직·문집유무, 저술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중 과거·관직·문집유무 등은 해당자만 적었으며, 몰년은 밝히지 않았다.

4. 「錦陽及門錄」의 分析

금문록에 기재된 이들은 모두 갈암이 평생 동안 가르친 제자들로 안동을 중심으로 한 영남 유림의 구성원들이며, 문인 각자의 성향과 이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면 당시 영남 유림사회의 한 단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문인록의 기초 자료를 분석하여 갈암과 교유한 문인들의 성격을 밝히는데 그치고자 한다.

「錦陽及門錄」에 기재된 내용은 ① 성명, ② 자, ③ 호, ④ 본관, ⑤ 친적관계, ⑥ 거주지, ⑦ 생년, ⑧ 과거, ⑨ 문집유무, ⑩ 저술관계 등이 기본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재된 내용 중 분석에 의미가 없는 자와 호, 저술관계를 제외 한 ① 거주지별 분포, ② 성씨별 문인 분포, ③ 과거합격자 수와 관직, ④ 사승

11) 금장태. 1996. 위의 논문. 267.

관계 등을 분석하여 문인들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1) 居住地別 門人分布

여기에서는 주로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현일의 문하로 모여들었는가 하는 점을 분석해 보았다. 이는 이현일의 지역적 영향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본다.

〈표 1〉 거주지별 문인분포

| 거주지 | | 문인수 | 지역수 | 문인수(%) |
|--------|--|-----|-----|--------|
| 각 도별 | 세부지역별 | | | |
| 강원도 | 원주 | 4 | 1 | |
| 경상남도 | 거창, 단성, 밀양, 산청, 삼가, 영산, 의령, 진주, 창녕, 초계, 하동, 함안 | 38 | 12 | |
| 경상북도 | 경주, 고령, 군위, 김천, 문경, 봉화, 상주, 선산, 성주, 순흥, 영양, 영주, 영천, 영해, 예천, 의성, 청도, 청송, 칠곡, 현풍 | 186 | 20 | |
| | 안동 | 74 | 1 | |
| 대구 | - | 4 | 1 | |
| 울산 | - | 1 | 1 | |
| 서울 | - | 9 | 1 | |
| 평안북도 | 정주 | 1 | 1 | |
| 함경남도 | 종성, 홍원 | 3 | 2 | |
| 황해도 | 장단 | 2 | 1 | |
| 기재안된 것 | | 36 | - | |
| 계 | | 358 | 42 | |

거주지별 문인 분포를 살펴보면, 358명 중 거주지가 확인된 32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향리인 영해와 안동지역의 문인들(영해 20명, 안동 74명)의 숫자가 압도적이며, 다음으로 봉화·선산·순흥·영양·예천·의성·청송 등 안동과 가까운 영남의 기타 지역의 문인들(186명)이 많았다. 이것은 전통사회의 학과가 지역 중심으로 형성된 현상의 전형적인 사례이다.¹²⁾

다음으로 많은 지역이 영남 남부 지역인 거창·산청·진주·창녕·함양·하동 등 지리적으로 가까운 영남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함경남도 종성과 홍원 지방(3명)의 문인들이 있는 것은 유배 때의 문인으로 보인다. 소수이지만 서울과 대구, 황해도에서도 이현일의 문인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동권씨는 봉화유곡, 의성김씨는 안동의 금소·천전·금계·신덕·임하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전주류씨는 임동에, 풍산류씨는 하회에, 재령이씨는 영양 석보와 영해에, 한양조씨는 영양 주곡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姓氏別 門人分布

성씨별 문인분포에서는 본관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13명을 제외한 34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관이 확인된 성씨는 96개 성씨로 성씨별 문인수는 평균 3.7명 정도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인의 대부분은 소수의 성씨에 속해 있다. 하단의 55개 성씨에 속하는 문인(문인수 1~2명)은 모두 73명인데, 성씨별 평균은 1.3명 정도인데 비하여 상단의 14개 성씨에 속하는 문인(문인수 5명 이상)은 모두 183명으로 성씨별 평균은 13명이나 된다. 이 같은 성씨별 분포 양상은 당시 안동일대 유림의 분포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상단에 있는 의성김씨·재령이씨·안동권씨·금성박씨·전주류씨·창원황씨 등의 문인들이 많은 것은 이들이 결혼을 통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은 후일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문인수 10명 이상인 상위권 성씨에 속한 문인들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성씨별 문인분포

| 문인수 | 성씨별 | 성씨수 | 문인수 소계 |
|-----|-----------------------|-----|--------|
| 34명 | 의성(김) · 재령(이) | 2 | 68 |
| 29명 | 안동(권) | 1 | 29 |
| 11명 | 한양(조) | 1 | 11 |
| 10명 | 금성(박) | 1 | 10 |
| 9명 | 전주(류) · 창원(황) | 2 | 18 |
| 8명 | 광산(김) · 오천(정) · 전주(이) | 3 | 24 |
| 6명 | 남양(홍) · 여강(이) · 영천(이) | 3 | 18 |

12) 어느 문인록을 보더라도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비슷하게 파악된다.

| | | | |
|---------------|---|----|-----|
| 5명 | 연안(이) | 1 | 5 |
| 4명 | 거창(신) · 광산(이) · 성산(이) · 성주(도) · 아주(신) · 옥산(장) · 팔계(정) · 풍산(류) · | 8 | 32 |
| 3명 | 문화(류) · 밀양(박) · 반남(박) · 벽진(이) · 봉화(금) · 부림(홍) · 성산(김) · 순흥(안) · 안동(김) · 월성(이) · 인천(채) · 전의(이) · 진성(이) · 진주(강) · 청주(정) · 축산(전) · 파평(윤) · 포산(곽) · 하산(조) | 19 | 57 |
| 2명 | 경주(이) · 곡강(배) · 남천(홍) · 남평(문) · 선산(김) · 성산(배) · 성산(여) · 안흥(이) · 야성(송) · 영천(박) · 예천(임) · 월성(손) · 의춘(옥) · 임성(백) · 평산(신) · 풍산(김) · 풍양(조) · 함양(박) | 18 | 36 |
| 1명 | 열거 생략 | 37 | 37 |
| 본관이 기재되지 않은 것 | | - | 13 |
| 계 | | 96 | 358 |

문인록에 가장 많이 등재된 성씨는 의성김씨와 재령이씨로 모두 각각 34명에 달한다. 그 다음이 안동권씨(29명)로 이들의 세거지는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입향조 때부터 혈연관계를 맺어 두 집안에서는 서로 간에 사제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의성김씨는 金璣의 후손(천전과 금계)들이, 재령이씨는 이현일의 후손들로 영해와 영양의 석보에, 안동권씨는 權穰의 후손(봉화 유곡)이 많고, 함양조씨는 영양 주곡에, 금성박씨는 영해에 주로 세거하고 있었다. 문인들의 혈족관계는 아래와 같다.

【부자관계】

金台重 - 金命錫, 金鼎錫
 權德輝 - 權重道
 權斗淸 - 權萬
 權斗寅 - 權蒲, 權擘
 朴潭 - 朴龍相
 朴來鳳 - 朴泰斗
 愼致中 - 愼命翊, 愼聖翊
 尹有孫 - 尹憲周
 李玄逸 - 李挺, 李栽, 李穰

【형제관계】

權斗經 - 權斗紀, 權斗淸, 權斗緯
 都萬甲 - 都萬鍾, 都萬祉
 朴文周 - 朴文夏
 朴潭 - 朴瀟
 朴來鳳 - 朴岐鳳
 裴正徽 - 裴益徽
 白暄 - 白暉
 安鍊石 - 安老石
 李德玄 - 李德齊
 李世瑗 - 李世寶
 李之炫 - 李之煜, 李之경
 張五相 - 張命相, 張廷相
 鄭來陽 - 鄭東陽
 金昌錫 - 金昌鎬
 金恒重 - 金履重
 洪相文 - 洪相民
 洪游聖 - 洪游敬
 黃壽岡 - 黃壽崙

먼저 의성김씨에서는 부자관계인 김태중 - 김명석, 김정석이 있으며, 안동권씨의 권두인 - 權蒲, 權桴가, 거창신씨에서는 愼致中 - 愼命翊, 愼聖翊이, 李玄逸 - 李槿, 李栽, 李穰 등 3형제가 있다.

형제관계에서는 봉화 유곡에 세거한 안동권씨의 權斗經 - 權斗紀, 權斗淸, 權斗緯 형제가, 대구에 거주했던 성주도씨의 都萬甲 - 都萬鍾, 都萬祉 형제, 영해에 거주했던 재령이씨의 李之炫 - 李之煜, 李之경 형제 등 부자나 형제 관계인 문인이 65명이나 되었다. 같은 성씨의 문인들 중에는 부자·형제·숙질 등 혈연관계가 밀접한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이현일의 문인들 중에는 형제가 함께 문인인 경우가 약 60명 내외가 되며 부자가 함께 문인인 경우도 있다. 그밖에 숙질이냐 종질이냐 종형제 관계인 문인들도 상당수 많았다. 또한 재종이나 친인척까지 고려한다면 이현일의 문인들은 거의 지연이나 혈연 등으로 이중·삼중 관계가 있는 사회 집단을 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

3) 科學 合格者 數와 官職

조선 시대는 과거의 합격 여부가 사회적 지위를 가늠하는 척도였다. 이현일 자신도 1646(인조 24)년과 1648년에 초시에 모두 합격하였으나 벼슬에 나아갈 뜻이 없어 복시를 단념하였다. 관직으로는 여러 관직을 거쳐 大司憲에 임명되었으며, 이어 兵曹參判·資憲大夫·右參贊·吏曹判書에 연이어 임명되었다. 문인들 중 사마 및 문과에 합격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과거 합격자 수

| 구분 | 합격자수 | 비고 |
|----|------|-------------|
| 사마 | 48 | |
| 문과 | 18 | 양시합격자 7명 포함 |
| 계 | 66 | |

문인록의 기사를 보면 소과와 대과를 구분하지 않고 사마·생원·진사, 문과로만 표기하였다. 과거 합격자 수는 사마시 합격자가 48명(13.4%), 문과 합격자가 15명(5.03%)으로 전체는 66명으로 문인 전체에서 18.4%밖에 되지 않지만 당시 학문과 벼슬이 높은 이현일을 구심점으로 하여 문과나 사마에 합격한 인물들이 주축이 되어 17세기 중엽 영남 유럽의 정치적·사회적 이해관계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양시에 모두 합격한 문인은 권두기, 권두경, 권두광, 권만, 조덕린, 김여건, 김수연이다. 문인들 중에서 관직을 받은 사람들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문인들의 관직

| 성명 | 과거 | 관직 | 성명 | 과거 | 관직 |
|-----|----|------|-----|--------|--------|
| 정도항 | | 교관 | 류경하 | | 참봉 |
| 안연석 | | 군수 | 정계 | | 참봉 |
| 조봉징 | | 군수 | 성문하 | | 참봉 |
| 이덕화 | | 군수 | 장만걸 | | 참봉 |
| 김원섭 | | 대사간 | 이화익 | | 참봉 |
| 박숙 | | 동추 | 박민효 | | 참봉 |
| 이규년 | | 목사 | 주건 | | 참봉 |
| 이익년 | | 목사 | 이정철 | | 참봉 |
| 홍승 | | 병조정랑 | 김수연 | 진사, 문과 | 참봉, 참판 |
| 김성좌 | 문과 | 부사 | 정중기 | | 참의 |
| 손만래 | | 부사 | 김한벽 | | 천감역 |
| 권세항 | | 부사 | 이광정 | 진사 | 천세마 |

| | | | | | |
|-----|-------|-----------|-----|-------|----------|
| 류두휘 | 문과 | 부윤 | 김우태 | | 천참봉 |
| 류맹휘 | 문과 | 부윤 | 김세선 | | 천참봉 |
| 황수일 | | 사간 | 이만 | | 천참봉 |
| 신몽삼 | | 세마 | 김태중 | | 천참봉 |
| 김여건 | 생원,문과 | 수찬 | 류후장 | | 천참봉 |
| 김효기 | 문과 | 승지 | 이지확 | | 천참봉 |
| 나학천 | | 승지 | 권두경 | 진사,문과 | 천현감,수찬 |
| 정우주 | | 승지 | 권상정 | | 첨정 |
| 김시경 | | 승지 | 송현석 | | 첨지 |
| 조덕린 | 진사,문과 | 승지,부응교 | 김명석 | | 첨지중추부사 |
| 이성징 | | 안동부사 | 강찬 | | 첨추 |
| 도이망 | 진사 | 영해부사 | 강여관 | | 첨추 |
| 신익황 | | 逸주부 | 임근명 | | 통정대부 |
| 이유 | | 장령 | 권두기 | 생원,문과 | 특평,현감,집의 |
| 배창 | | 장사랑 | 김간 | | 판결사 |
| 김이옥 | | 장사랑 | 이형상 | | 판결사 |
| 이재 | | 장악원주부 | 채헌징 | | 필선 |
| 황수의 | 문과 | 정랑 | 박태두 | 문과 | 현감 |
| 윤제하 | | 정랑 | 홍유경 | | 현감 |
| 전명삼 | | 정랑 | 오시형 | | 현감 |
| 여성거 | | 정언 | 홍집 | | 현감 |
| 김창석 | 문과 | 정언,도사 | 류후광 | | 현감 |
| 권두굉 | 진사,문과 | 정자 | 이지경 | | 현감 |
| 채평윤 | | 제학 | 박안도 | | 현감 |
| 이두망 | | 제학 | 류세장 | | 현감 |
| 이덕현 | | 좌랑 | 류세창 | | 현감 |
| 이기명 | | 좌랑 | 홍천령 | | 현감 |
| 홍상민 | | 주부 | 윤유손 | | 현감 |
| 김순의 | | 증대사헌 | 원치도 | | 현감 |
| 박래봉 | | 증대사헌 | 홍백원 | | 현감 |
| 권만 | 진사,문과 | 증이조참의,의병장 | 윤동로 | | 현령 |
| 박신윤 | | 증좌랑 | 이삼달 | | 현감 |
| 정만양 | | 증지평 | 이주명 | | 형조좌랑 |
| 배면 | | 증참의 | | | |
| 이성중 | | 직장 | | | |
| 권두인 | 진사 | 참봉 | | | |
| 홍상문 | | 참봉 | | | |
| 이만기 | | 참봉 | | | |

〈표 4〉에 수록한 관직은 문인록 기사에 있는 그대로 분석한 것이다. 관직을 받은 문인은 총 95명으로 정상적인 과거를 통해서 품직을 받은 문인은 사마 10명,

문과 14명이다. 이를 다시 세분해서 보면, 사마시에 합격하고 관직을 받은 문인은 김여건(수찬)과 조덕린(승지·부응교), 도이망(영해부사), 김수연(참봉·참판), 이광정(천세마), 권두경(천현감·수찬), 권두기(특평·현감·집의), 권두굉(정자), 권만(의병장, 증이조참의), 권두인(참봉)이다. 문과에 합격하고 관직을 받은 문인은 김성좌(부사), 류두회(부윤), 류맹회(부윤), 조덕린, 김수연, 권두경, 권두기, 권두굉, 권만, 박태두(현감) 등이다. 기타 증직된 문인은 김원섭(대사간), 이규년(목사), 이익년(목사), 채팽윤(제학), 이두망(제학), 김간(판결사), 이형상(판결사), 이주명(형조좌랑) 등이 있다.

4) 師承關係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사제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사제관계는 이현일과의 학문적 관계를 유지하였나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지금까지 편찬된 모든 문인록이나 사우록, 급문록을 보면 학문적 관계를 기술하는데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사용한 용어들의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점이 문제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된 것은 전통사회에서 학문적 교류라는 것이 지금과 같이 전문성을 위주로 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인격적 만남을 중요시 한데 따른 결과인 것이다. 거기다가 문인록 편찬자들이 문인의 개념을 너무 포괄적으로 잡은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¹³⁾ 이 분석에서는 문인록에 사제관계를 표기하지 않고 있어 『갈암집』의 만시, 만사, 書, 표묘 등을 분석하여 사제관계를 파악하였다.

이현일과 관계가 언급되지 않은 사람이 243명으로 67.8%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배알이나 왕래 등 사제간이라가 보다 교유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115명으로 32.12%를 차지하고 있다. 문인록의 기사에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을 문인으로 볼 수 있다. 문인록에는 묘표와 書, 제문 등이 <표 5> 과 같이 실려 있다.

<표 5> 문인들의 글

| 구분 | 수록숫자 | 비고 |
|----|------|--------------|
| 墓表 | 1 | 제문 중복 15건 포함 |
| 書 | 64 | |
| 祭文 | 50 | |
| 계 | 115 | |

13) 김종석. 앞의 논문. 18.

문인들이 수록한 글을 파악해 보면, 총 115명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서찰이 164명으로 제일 많으며 제문이 55명, 표묘가 1명 등이다. 이들 글들은 모두 고인의 학덕을 기리고 서거를 슬퍼하는 것들이다. 문인들이 쓴 제문은 피차의 관계를 확인하는 사회적인 중요성도 있겠으나 원래 미사여구로 시종하고 대동소이하여 그 분량에 비해서 사료로 쓸 내용이 적음은 유감이라 하겠다. 이현일의 문하에는 창설 권두경과 하당 권두인, 고산 이유장, 옥천 조덕린, 금헌 백돈, 해은 박기봉, 칠탄 김세흠, 회양당 권상정, 밀암 이재, 향재 이송일 등 당대 영남을 대표하는 퇴계학통의 계승 학자들이 많았다.

6. 맺음말

지금까지 많은 문인록이 편찬되었으나 이 문인록에는 358명의 문인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인록에 기재된 내용 중 분석에 의미가 없는 자와 호, 저술관계를 제외한 거주지별 문인분포, 성씨별 문인분포, 과거합격자 수와 관직, 사승관계 등을 분석하여 문인들의 성격을 밝혀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지별 문인분포 분석에서는 358명 중 거주지가 확인된 32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향리인 영해와 안동지역의 문인들(영해 20명, 안동 74명)의 숫자가 압도적이며, 다음으로 봉화·선산·순흥·영양·예천·의성·청송 등 안동과 가까운 영남의 기타 지역의 문인들(186명)이 많았다. 다음으로 많은 지역이 영남 남부 지역인 거창·산청·진주·창녕·함양·하동 등 지리적으로 가까운 영남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함경남도 중성과 홍원 지방(3명)의 문인들이 있는 것은 유배때의 문인들로 보여 진다. 소수이지만 대구, 황해도에서도 문인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성씨별로 보면 문인들은 96개 성씨로 분산되어 있으며 문인 중 183명은 14개 성씨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안동 일대의 명문가이며, 부자나 형제·숙질·종형제 등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과거급제와 관직을 살펴보면, 사마시 합격자가 48명(13.4%), 문과 합격자가 15명(5.03%)로 전체는 66명으로 문인 전체에서 18.4%밖에 되지 않았다. 실제로 관직을 받은 사람은 사마 10명, 문과 14명이다.

넷째, 사제관계를 보면, 갈암과 관계가 언급되지 않은 사람이 243명으로 67.8%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배알이나 왕래 등 사제간이라가 보다 교유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115명으로 32.12%를 차지하고 있다. 문인록의 기사에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을 문인으로 볼 수 있었다.

갈암의 문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퇴계 학맥을 계승한 문인들의 성격을 알 수 있었음은 물론, 안동 일대의 영남 유림을 조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參考文獻》

『葛庵集』.

琴章泰. 1996. 갈암 이현일의 인물과 사상. 『退溪學派의 思想(1)』, 서울: 집문당.

윤천근. 1994. 갈암 이현일의 삶과 의식세계. 『안동』, 안동: 사랑방, 11-12.

李東歡. 2001. 하나의 葛庵論: 葛庵集 解題. 『17세기 한 嶺南 道學者의 生涯: 葛庵 李玄逸의 年譜 외』, 성남: 嶠文會.